

## [인터넷/미디어]

2018/09/20

인터넷/게임/미디어

김민정

(2122-9180)

mjkim@hi-ib.com

### Q. EU의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면?

#### A. 제작 경쟁력을 보유한 콘텐츠 제작사에게 유리

##### ■ EU의 저작권법 초안 통과

지난 9 월 12 일 EU 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써드파티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배분하게 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1) SNS, 블로그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써드파티 콘텐츠를 링크할 경우 콘텐츠 제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링크세 도입, 2)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자동 콘텐츠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업로드 필터 설치 조항이다. 이번 법안은 초안으로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EU) 28 개국 회원국 간의 협상을 거쳐 내년 본회의에 최종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 ■ 순기능과 악기능 혼재

그동안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콘텐츠 기반의 막대한 광고 수익을 창출한 것에 비해 콘텐츠 제공업자가 디지털 유통 채널을 통해 창출한 매출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해 인터넷 기업이 콘텐츠 제작사에게 제공하는 수익 배분율은 상승하겠지만 부정적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4 년 스페인에서 링크세를 적용했을 때 구글은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오히려 언론사들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또한 업로드 필터 설치 조항으로 인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UGC (User Generated Contents)에서 콘텐츠 검열이 이루어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용자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 ■ 인터넷 업종에 부정적,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종에 긍정적

금번 EU 의회의 저작권법 제정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자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링크세가 도입된다면 콘텐츠 사용료 부담 증가에 따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며, 콘텐츠 제작사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수익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는 콘텐츠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제작의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공동 제작 및 제작비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김민정\)](#)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 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견 비율(%)	93.9 %	6.1 %	-